

# 마크 제닝스 박사, 마가복음 20강, 마가복음 12:38-13:36, 가난한 과부, 종말론적 담론

© 2024 Mark Jennings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마크 제닝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마가복음 12:38-13:36, 가난한 과부, 종말론적 담론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며, 우리는 예수와 예수에 대한 상호 작용,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야기, 그가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나누었던 교류와 토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일곱 번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에피소드를 다루고, 마가복음 13장과 올리브산 담화에서 그의 더 잘 알려졌지만 복잡한 가르침 중 하나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권위와 성경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헤롯당, 사두개인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서기관이 그에게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매우 우호적인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지난번에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시고,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본질적으로 서기관들에게 다윗이 그의 자손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그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답하라고 거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서기관들에게 거의 도전과도 같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는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은 다윗에게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다윗의 아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의 공적 가르침의 마지막

에피소드인 38장부터 44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초점의 중심은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입장이며, 과부의 겸손한 믿음과 대조되는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그러니 38장부터 44장까지 살펴보고 12장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회당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좋아하고 잔치에서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겹치레로 길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고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 한 명이 와서 두 개의 작은 구리 동전을 넣었는데, 그것이 한 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느니라. 그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에서 넣었지만, 그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어서 생활에 충당하였느니라. 이것이 경고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것은 바리새인과 헤롯당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그의 경고와 비슷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의 교만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함은 사회적 지위와 함께 오는 모든 덧에 대한 욕망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함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받고, 중요한 자리에 앉고, 이런 명예-수치 문화에서, 앉으면 명예가 전달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싶어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갈릴리 시골에서 가르치셨던 일을 떠올립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께서 이런 집에 계셨을 때, 군중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서기관들은 여전히 앉아 있었고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런 명예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주목하세요. 그들은 이런 인사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명예로운 자리에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핑계로 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 명예의 모든 은총을 원하면서도 잔인한 것 사이에 긴장감이 있습니다. 과부의 집을 삼키는 이 그림은 매우 잔인한 그림입니다. 특히 이들이 서기관이었고 법이 과부를 보호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기관이 누구였든, 법의 말씀을 이해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야 했고, 과부를 보호해야 했지 과부의 집을 삼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저는 여기의 그림이 그들이 과부의 곤경에서 혜택을 받고, 무력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노린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어떻게든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긴 기도를 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신이 행하는 일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정죄를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여기 경고를 주목하세요. 예수님의 경고는 심판 주장과 함께 옵니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 오는 명예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사회적 이익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의 방금 말씀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그가 앉아 있고, 그는 보물 속에 있고, 그는 사람들이 이 돈을 아마도 더 큰 금속 용기에 넣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금속 용기, 상자, 항아리라면, 그것은 일종의 배열이었을 것이고, 다른 금속으로 들어왔고, 다른 크기로 들어왔고, 특히 순례자들이 다른 동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양은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사용하는 동전의 종류에 따라 소리가 납니다. 실제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었는지 알고 싶다면 동전이 청소될 때 나는 소리가 그 힌트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기가 있고, 순례자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들은 재무부에 엄청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과부에 대해 언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의 전문가인 서기관들이 과부를 돌보지 않고 과부의 집을 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의 동전을 합치면 한 푼을 벌 수 있는 이 과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금액으로요.

그는 과부를 그녀가 한 일을 긍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다른 사람들, 종교 기관에 대한 심판의 진술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성전에 돈을 바치는 마지막 사람이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성전과 종교 지도자가 과부를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있으며, 그녀가 바친다는 진술은 이러한 신뢰를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부양받을 것이라는 믿음, 완전한 신뢰의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서기관이 한 질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우리는 서기관이 질문을 한 다음 서기관이 언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기관이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 세마를 인용하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과부가 온전한 헌신을 보이고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은 분명히 성전 설립에 쓰였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지어 여기에, 이 과부가 하나님 나라의 시각적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잉여금에서 헌금을 했다는 점에서 요점을 그립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희생적인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다치게 하는 기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분의 기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기관들에 대해 방금 한 말의 맥락에서, 나는 그 의미가 그들이 용서함으로써 명예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많은 양으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가난에서 주었지만, 명예에 대한 욕망이나 찬사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신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무슨 일이 행해질 것인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에 대한 믿음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신뢰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는 12장은,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공개적 가르침을 끝냅니다. 그래서, 믿음과 신뢰에 대한 이 진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온전히 주는 것,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조심하라는 맥락에서 재연하는 것은, 단지 허세를 부리고자 하지만 스스로를 위해 찬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는 맥락에서,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과 예루살렘과 공개적 상황에서의 가르침을 끝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과부에 대한 이 작은 이야기를, 저는 그것을 마가복음에서 마지막 단어로 선택한 것처럼 읽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다면, 그저 귀여운 작은 이야기 이상의, 예수님이 사용해 온 판단과 제자도에 대한 언어에 대한 적절한 요약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계속해 봅시다. 마가복음 13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죄송하지만, 그냥 여기로 내려오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저는 종말론적 담론에 대해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제 일종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갔고, 떠났고, 떠났고, 떠났고, 이제 그는 떠날 것이고, 다음에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아시다시피, 최후의 체포와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보아온 것은 이스라엘, 특히 지도자들이 위임에 복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을 제도화했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부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성전의 끝에서요. 성전의 저주에 대해 말씀하셨고, 소작인에 대한 비유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제 생각에는,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런 진술, 성전에 대한 진술, 그리고 심판에서 베푸신 것 등, 이 모든 일에서 쪽 해오셨던 일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에서 발견되는 가장 긴 연속적인 가르침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이전에 가장 긴 연속적인 가르침은 대략 6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는 39문장으로, 매우 유사한 종말론적 주제, 즉 성전, 예루살렘의 파괴, 그리고 인자의 오심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아마도 예수의 십자가 처형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물론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이 종말론적일까요? 이 담론을 종말론적 연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까요? 그리고 1 에녹, 37~71장, 그리고 다른 제2 성전과 위경적

종말론 장르에서 볼 수 있는 종말론적 구절과 확실히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마가의 작은 종말론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전형적인 요소를 감안할 때, 우리가 종말론적 글쓰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종류의 천상의 환상, 종종 천사의 종재자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여기 마가복음 13장에는 보통 인간 역사의 요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장르는 보통 인간 역사의 요약, 어떤 종류의 이미지, 천사, 천상의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은 종말론이 장르로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담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종말론적 담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운동이 시작과 마찬가지로 예상된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라는 말은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제정된 시대라는 의미에서도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는 십자가의 그림자가 약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안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구조를 안내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다른 구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위치시키고 거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23절까지는 움직임인 듯합니다.

24~27, 사람의 아들. 28~31, 무화과나무. 그리고 32~37, 경계.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보기 시작할 때, 이 구절은 마가복음에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살펴볼 때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겸손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한 명확한 답은 모든 가능한 옵션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3장을 생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다른 것들은 성전의 파괴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과 예수께서 마가복음에서 앞서 하신 일 사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가 말씀하신 것, 그리고 성전에서 일어난 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해하고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네 구절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가 성전에서 나오시자,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돌들이며 얼마나 놀라운 건물들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가 성전 맞은편 올리브 산에 앉았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그에게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일들이 곧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우리가 1절을 볼 때, 이것은 어떤 시골 사람이 이 큰 건물들을 보고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도 이 여행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자존심 문제일 겁니다.

그리고 나쁜 의미가 아니라, 와우, 이 위대한 사원에서 우리 도시를 보세요. 그것은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보고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무언가였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전의 서쪽 기초의 일부로 발견된 돌은 무게가 약 600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랄지에 대한 진술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지에 대한 이 진술은 2절의



배경을 마련합니다 .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십니까? 여기에는 무너지지 않을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것이 성전 파괴에 대한 성명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그는 무너질 성전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던지는 언어는 매우 활동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성전이 성전에 대한 저주라는 예수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해 온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이제 제안된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돌들 사이에 있는 이 돌.

얼마 전 한 신사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가 예수의 말씀이 서기 70년 성전의 파괴를 언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 여전히 볼 수 있는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돌이 던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애곡의 벽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이 요점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7:13과 학개 2:15를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할 때 돌 위에 돌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한 돌이 다른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어는 건축 언어와 정확히 반대입니다. 건축 언어는 한 돌 위에 다른 돌을 쌓는 것이고 이제 하나는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가 다른 돌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어의 비유적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만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개하지 않으면 언어가 부족하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예루살렘과 성전과 선지자들의 파괴 언어를 볼 때, 그것은 종종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들이 듣지 않는 한, 그러면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보통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나에게 오지 않는 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심판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올리브 산에 앉으셨습니다. 올리브 산은 구약성경에서 중립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그가 있었던 지리적 위치일 수 있지만, 우리는 올리브 산에서, 여기가 어떤 판단을 가졌던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에제키엘과의 연결, 올리브 산과의 연결, 종말론과의 연결,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르치기 위해 앉았고, 빅 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이 있었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지만, 앤드류는 이 자리에 있었고, 앤드류는 여기에 있었고, 그는 그에게 비밀리에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 모든 일들이 곧 이루어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라고 물었던 네 명과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묻는 것이 그들의 생각 속에서 성전의 파괴가 모든 것의 끝과 동의어이며, 그들이 그 둘을 연결하고 있다는 가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것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4:3은 마태복음에서 같은 담론인데,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할 때, 복수형인, 그저 이런 것이라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가 성전에 대해 한 말을 언급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신,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성전에 대해 방금 말씀하신 파괴가 모든 것의

종말이나 큰 도래, 그의 재림의 징조와 함께 올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하나의 특정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말이 됩니다.

성전의 파괴가 어떻게 배설물적 사건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그들의 오류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오류는 성전의 파괴와 모든 것의 끝이 같다는 가정에 있고, 저는 예수께서 그의 답변에서 그 오류를 풀어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5절에서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들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표적을 구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그릇 인도하지 못하게 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 하며, 많은 사람을 그릇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전쟁 소문을 들을 때, 놀라지 말라.

이것은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출산의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모든 것의 끝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대의 끝이 언제 올 것인가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먼저 표징이 아닌 것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5장부터 8장까지의 그의 대답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항목을 나열하기 시작하지만, 그는 이것들이 끝이 곧 다가온다는 표징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들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을 논의할 때, 지금과 끝이 올 때까지 시간이 흐른다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들이 나라를 대적하고, 왕국들이 왕국을 대적하고, 여러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입니다. 이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는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전쟁 소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나야 하지만 끝은 아직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각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가 예수를 그의 답변에서 분류하는 것은 그가 먼저 속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무도 너희를 그릇 인도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전쟁, 전쟁 소문, 기근, 지진, 이 나라들이 나라들을 대적하고, 왕국들이 왕국을 대적합니다. 속기 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떤 희망이든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고, 메시아라고 주장하거나, 아마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언급될 수 있는 그 진술,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볼 때, 당신은 이것이 끝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보세요. 그는 속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방금 말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출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끝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겪으면서, 오, 이것들은 시대의 끝의 징조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요청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이것들은 징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출산의 고통입니다.

시작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계점도 아닙니다. 우리는 9에서 13까지 계속 작업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어느 정도 굳어지게 합니다.

그는 다시 시작하지만,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공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여러분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내가 그들에게 증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그들이 여러분을 재판에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성령과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부활시켜 죽일 것이며, 여러분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목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박해가 있고, 회당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교회가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하고 그것과 분리되기 시작할 때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지만, 더 넓은 느낌이 있습니다. 인내의 언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다니엘 12장의 아이디어, 이 나라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는 강력한 모티브가 있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제 저는 어떤 그룹들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모든 것의 종말이 마침내 올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마치 그것과 관련된 어떤 종류의 통제나 예측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또는 모든 것을 끝내는 방법으로 민족에게 가는 것이 여기서 선교적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시되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그림입니다. 제가 믿는 바에 따르면, 예수께서 이 기간, 즉 그의 떠남과 그의 재림 사이의 기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간이 두 가지 측면으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하나는 고난, 기근, 지진, 전쟁, 이 독특한 고난과 박해,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미워하고, 형제를 대적하여 너희를 넘겨주는 것,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부터 도착하고, 재림하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의 기간을 특징짓는 고난과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이 박해와 선교로 특징지어질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아름다운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설계하신 방식은 바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민족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은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교회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거의 시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뒤집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거의 박해 받는 사람들이 박해자에게 가서 그들이 박해받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진술은 또한 희망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억압적으로 보이더라도, 자연적인 고통이든 정부의 억압이든, 예수님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고난, 5절에서 8절까지, 박해는 복음의 진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흥미로운 탈출 힌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모세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을 주실 것이라고 확언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약속이에요. 하지만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런 출산의 고통. 저는 이게 사산의 고통, 복음 전파, 그리고 그로 인한 박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이 인내는 이 기간의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진술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간의 끝까지 견디는 자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임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와 박해는 진정한 믿음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14절에서 23절까지 다시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출산의 고통, 내가 읽고 있는 이 시기는 종말의 징조가 아닙니다. 그러나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멈추고 내려가지 말고 집에 들어가지 말고 아무것도 꺼내지 말라. 밭에 있는 사람은 뒤돌아 외투를 꺼내지 말라. 마지막은 임신한 여자들과 그 당시에 젖을 먹이는 여자들을 위해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에는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택하신 택함받은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단축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릇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택함받은 자들은 너희를 경계하라.

저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4-23절을 다루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아시다시피, 5-13절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전쟁 소문, 지진, 고난, 나라와 나라, 나라와 나라. 통치자, 의회, 총독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구체성이 있지 않나요? 아시겠지만, 황폐의 가증한 것을 보면 특정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황폐의 가증한 것의 개념은 다니엘 9장, 11장, 12장, 마카비 상권 1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폐의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 희생 제사 의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서 무언가는 이교도의 물건이거나 희생 제사가 성전에 놓여 성전 활동을 이교도 활동으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황폐의 가증한 것의 관념조차도 성전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물이 아니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의 가증한 것을 볼 때, 당신은 그가 어디에 있어서는 안 될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행동을 하는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나타내는 표준일 수도 있습니다. 움직임을 빨라야 하고, 즉시 떠나야 하고, 가야 하고, 아시다시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언어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매우 구체적입니다.

겨울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시기에 모유수유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여기서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출산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출산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 일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루살렘의 약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전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로마가 들어와서 그것을 평평하게 만들 때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표준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황폐함의 가증한 것을 구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수십 년 안에 일어날 일을 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즉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언어, 이것이 마지막 사건이라는 생각은, 그 날에, 창조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진술을 감안할 때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제 말은, 그것들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끝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표현은 흔한 과장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9장과 11장, 신명기 4장, 다니엘 12장, 요엘 2장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것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약탈과 성전 불태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사망과 파괴의 비율 면에서 상당하고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이 짧아진다는 것조차도, 저는 로마가 도착한 순간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언제 끝날지 정하셨고, 그분은 택함받은 자들을 향한 연민으로 그것을 멈추셨는데, 저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심판에 휘말린 예수의 유대인 추종자들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생각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론 구약성경의 그림에서 하나님께서 종종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나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는 이미 그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것이 언제 도착하는지와 그것의 심각성을 아는 것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것에 휘말릴 수 있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이 예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제자들에게 준 지시인데, 그런 다음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가서 이것을 보면 달려가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9절에서 13절까지를 종말의 징조로 오해하지 말고, 이 황폐의 가증한 것이 이제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특징짓는 특정한 출산의 고통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 섭리, 은혜, 인내를 보여주고, 수십 년 안에 예수께서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이신지, 그가 이것을 정말로 예언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저는 24절에서 27절까지 계속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들이 진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름 속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그의 택함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들은 종종 신현이나 신의 개입, 심판 언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예레미야 3장, 5장, 31장, 요엘 2장, 스가랴 8장을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침내 예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언제 또는 무엇이 표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자들의 질문은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표적을 잘못 혼동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먼저 표적이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하셨는데, 표적이 아닌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라는 독특한 환난이라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루살렘 약탈이 언제 일어날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황폐의 가증한 것이 나타날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표징이 아닌 것에서 그것을 찾으려면 그 기간 내에서 찾으십시오. 그는 이제 사물의 종말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러니가 사물의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왕국에 오실 징조는 그의 도래입니다. 제 말은,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떻게 끝이 왔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끝이 왔기 때문에, 그것에 할당될 수 있는 어떤 것에도 속아서 안 됩니다. 제 말은, 그것이 이 언어가 전개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신이 끝이 가까웠다는 지표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파멸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속임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오면 끝이 온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우주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이사야 13장과 34장, 에스겔 32장과 요엘 2장, 아모스 8장에서 볼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사야 13장에서 바빌론, 예루살렘, 예레미야 4장, 파라오의 군대, 에스겔과 사마리아, 아모스의 멸망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묘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태양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질 때, 그들은 구름 속에서 큰 권능으로 오는 인간의 태양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하는 것은 주님의 날, 사물의 끝, 창조 구조가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할 수 없는 것, 성도들의 큰 모임입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이 모임에도 통로가 있다는 것을 유의하세요. 이 빛의 모임에는 시간의 통로가 있지만, 아이디어는 어떤 신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모서리와 네 바람에서 모인 이 큰 모임은 모두 일종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흥미로운 종류의 십자가 그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주님의 큰 날의 그림이라면, 인간의 태양이 돌아오고 심판이 일어나고 창조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림이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것이 약간 충돌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조금 후에 그것을 다룰 것이지만, 십자가 오버레이의 힌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교훈을 얻으시며 마치십니다. 가지가 연약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왔음을 아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과 땅은 지나가되 내 말은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실 것이니라. 깨어 있고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니라.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 여행을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저녁이나 자정이나 닭 울 때나 아침이나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니,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그가 방금 묘사한 이런 것들을 볼 때,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결합되어 있지만, 시간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말은, 속임수는 항상 사람의 아들이 도착할 때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을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이 시간의 예측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시는, 아시다시피, 명령은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심지어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위대한 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잠시 알지 못하셨지만 지금은 아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지식에 보관되어 있지만 어떻게든 하나님 아들의 지식에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셨을 때 항복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많은 논쟁이 있지만, 저는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곳은 그것이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들 자신이 그의 파견 시기를 모른다면, 여러분 중 누구든지, 우리 중 누구든지, 제자 중 누구든지 끝이 언제 올지, 그리고 그것의 징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대신, 우리는 조심하고, 깨어 있고, 준비해야 하며, 그가 돌아올 것이라는 확실성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돌아올 것이고, 끝이 있고 큰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일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마가복음 13장이 전개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대한 이 질문과, 재림 사이의 시간에 대한 이 질문, 그리고 언제, 그의 재림의 징조는 무엇이고, 그의 재림의 징조는 창조 자체가 무너지고 택함받은 자들이 모임 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사이를 오가며 대답하시는 방식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마가복음 13장과 물론 언약 고양 담화에서 생각할 것이 너무 많지만, 아마도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복음은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지만, 그분이 돌아와서 우리 모두를 모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가복음 14장을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Mark Jennings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0, 마가복음 12:38-13:36, 가난한 과부, 종말론적 담론입니다.